

나침반교회,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항해를 시작하다

민경업 목사 27년 동안 섬겨 나침반 교회 인도자는 하나님 신임 이종천 목사 “참으로 연약한 사람”

2025년 12월 28일(주일) 오후 4시, 브레아 지역 나침반교회에서 민경업 목사의 은퇴 감사예배가 드려졌다. 민 목사는 지난 27년간 교회와 지역사회, 교계 연합을 위해 헌신하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비전을 실천해 온 목회 사역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예배는 1부 은퇴 감사예배와 2부 이·취임 및 은퇴 감사 행사로 진행됐다.

예배는 PCA 한인서남 OC노회 서기 안효성 목사가 인도했다. 그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의 리더십 이양 사건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닌 하나님께서”라며 말했다. 이어 “민경업 목사님이 해오신 사역도, 앞으로 이종천 목사님이 감당할 사역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침반교회를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설교는 OC교협 증경회장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가 “주님께 상급 받는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한 목사는 민경업 목사가 오렌지카운티 교회협의회 사역을 통해 연합 운동에 힘써 온



나침반교회가 담임목사 이취임식 및 은퇴감사예배를 드렸다. ©기독일보

점을 증거하며, 세상적 보상과 하늘의 상급을 대조했다. 이어 나침반교회가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한 세 가지를 나누었다.

그는 “27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민경업 목사님 내외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라 확신했다. 또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상급은 순종에 따라 주어진다”며,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하늘 나라에 큰 상급을 쌓는 교회가 되길 격려했다. 끝으로 “나침반교회가 화목하고 부흥하며 선교하는 행복한 교회로 소문나, 지역사회에 더욱 아름다운 동

역이 이루어지길 축복한다”고 축원했다.

2부 이·취임 및 은퇴 감사 행사

민경업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우종복 시무장로와 강정희(김정희) 시무권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어 PCA 한인서남 OC노회장 이영찬 목사가 민경업 목사를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로 추대·공포하고 추대패를 전달했다.

축하영상 상영 후 이재환 선교사(COME Mission 대표),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 이성우 목사(미국 합신노회 노회장·크리스천헤럴드 대표)의 축사, 송황의 장로의 송사, 담임목사 취임패 증정, 박내원 장로의 환영사, 이영찬 목사의 권면, 김상선 목사(PCAPCA

한인서남노회 노회장) 축사, 김기동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주요 축사 요약

이재환 선교사는 영국 올 소울즈 교회에서 27세에 목회를 시작해 83세에 은퇴한 존 스토트 목사를 예로들며, “1999년 민 목사님 취임 때 축사했던 제가 은퇴 때도 축사하게 되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이종천 담임목사님을 통해 새 비전을 품고 브레아 지역 최고의 교회가 되길 축원한다”고 전했다.

이성우 목사(크리스천헤럴드 대표)는 민경업 목사를 “연합 운동의 진정한 나침반”으로 평가했다.

조셉 리 기자

PCA 교단, 미주 합신 노회·동문회, 미주 한인교회 연합, 미주성시화운동본부, OC교협 회장·이사장 등으로 섭기며 연합 운동에 앞장섰음을 치하였다.

송황의 장로(교회 대표 송사)는 “1999년 9월 부임 이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어오셨다. 기쁨의 날과 어려운 날들 속에서도 말씀 중심의 목회를 놓지 않았셨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민 목사는 장석주 시인의 시 ‘대주’를 인용하며 답사를 전했다.

“대주 한 알이 익는 데에도 태풍과 천둥, 무서리와 팽별이 필요하듯,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많은 분들의 동역과 격려가 있었기에 27년 목회가 가능했다”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은혜에 감사했다.

이어 “이종천 담임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천 목사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라며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세우심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려 한다”고 고백했다. 이어 “사람의 방법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충성되게 섬기겠다”고 답사했다. 이날 예배는 김기동 목사(OC교협 증경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크렌셔장로교회, LA장로교회로 새 출발

크렌셔장로교회(한현종 목사)가 지난해 말 크렌셔 블리바드 소재지를 떠나, 영옥 김 아카데미(Young Oak Kim Academy) 맞은편 샤토플레이스(Chateau Place)로 이전했다. 이 교회는 교회 명칭을 LA장로교회로 변경하며, 1월 4일 주일,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성도들과 지역 교계 인사들이 함께해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한현종 목사는 학개서 2장 9절을 본문으로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학개서가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신앙 회복을 촉구하는 말씀임을 강조하며, 성전 건축이 갖는 영적 의미를 설명했다.

한 목사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16년 동안 이를 방치하고 현실에만 몰두했던 시대적 배경을

언급했다. 그는 “허름해 보이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결국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삶을 꾸려가려 했다”며, 그 결과가 학개서 1장 5~6절에 기록된 공허함과 결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신앙 인의 모습과 크게 다

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많은 수고와 투자를 하지만, 그만큼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라는 것. 한 목사는 “성전을 세우지 않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면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며, 성전 건축에 참여할 것을 권



크렌셔장로교회가 장소를 사토길로 이전하고, 교회 이름을 LA장로교회로 변경했다. © 기독일보

면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전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성전이라는 점이다. 그는 성도가 자신을 성전으로 세워가야 함에도, 실망과 낙심으로 공사가 중단된 ‘미완의 성전’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볼

것을 도전했다.

둘째로 그는 학개서에 등장하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설명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고 조라해 보였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말했다.

특히 학개서에 반복되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에서 ‘굳세게 하다’의 히브리어 ‘하자크(달라붙다)’의 의미로 풀어내며, “성도의 삶은 세상의 가능성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여 사는 삶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목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며 “2026년 한 해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개인과 가정, 교회가 새롭게 흔들리고 회복되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LA장로교회는 2022년 8월 28일 창립예배를 드리며 세워졌다.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주일예배(한국어/EM)를 드리며, 토요일 오전 6시에는 토요 새벽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주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문의: 213-407-1600

복 많이 받으세요



회장 장병우
Alex Byongwoo Chang

Tel. (213)384-6919

www.puacla.com

Email: suekim357@yahoo.com

3660 Wilshire Blvd. #406 Los Angeles, CA 90010

대한민국 대통령직속 헌법자문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로스앤젤레스협의회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Los Angeles Chapter



미주평안교회 박병열 목사, “AI시대에도 말씀 중심으로”

**목회자의 세가지 중요한 사명
약속, 임승진 목사(3대 담임)
선교목사로 추대**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이임·취임예배가 12월 28일 오전 11시 미주평안교회 본당에서 거행됐다.

이날 예배에서는 제4대 담임목사 임승진 목사가 이임하고, 제5대 담임목사로 박병열 목사가 취임했다.

예배는 임승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교회소식과 신앙고백, 찬양과 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박혜성 목사(ATI 학장)가 ‘목양의 두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시대가 바뀌고 AI 시대가 도래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불들어야 할 것은 말씀”이라며, “담임목회자는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야 한다. 목회자는 말씀으로 어린 양들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회가 걸어온 말씀 중심의 전통을 끝까지 불들기를 바란다. 성도들이 이를 함께 서포트

할 때 교회가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이취임 예식은 송정명 원로목사의 집례로 진행됐다. 이임 인사말씀은 임승진 목사가 전했으며, 선교사 축대패 전달과 꽃다발 증정 순서가 마련됐다.

신임 담임목사 안수에는 송정명 목사, 박혜성 목사, 민종기 목사, 이삼랑 장로 등이 안수위원으로 참여했다. 치리권 이양과 취임패 전달이 이어졌고, 특송은 김영옥 권사와 염미정 권사가 맡았다.

축사는 영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고신원 목사(한국 신월동교회), 이해진 목사(애틀란타 벤엘교회), 오정녀 선교사(아프리카 케냐 선교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권면은 민종기 목사(KCM USA 이사장)가 맡았고, 격려사는 Bernie Hong 목사(미주평안교회 영어부 담당)가 영상으로 전했다.

축사자들은 “박병열 목사가 진리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성령 충만한 목회를 감당하며,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이임·취임예배가 거행됐다. ©미주평안교회

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이 모여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역사가 되어 결국 ‘히즈 스토리’, 곧 주님의 이야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박병열 목사와 사모를 통해 교회 가운데 새로운 주님의 이야기가 써 내려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종기 목사는 권면에서 “미주평안교회가 지켜온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이 교회 위에 희년의 기쁨과 잔치가 임하기를 바라며, 건강한 목회는 목회자 혼자 만이 아니라 좋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고 했다.

박병열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유년주일학교 대표가 꽃다발을 증정했다. 예배 참석자들은 폐회찬송 ‘찬송가 620장 여기 모인 우리’를 함께 부른 뒤 박병열 담임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박병열 목사는 “오직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아심을 믿는다”며, “이 자리에서 목회자의 세가지 중요한 사명을 여러분과 약속하고 싶다. 담임 목회자의 중요 역할은 목양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함께 웃고 우는 참된 목회자가 되기를 노력하겠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말씀의 꽃’을 먹이는 목자가 되겠다”고 했다.

그리고 “기도 사역에 집중할 것이다. 하나님께 무를 끓는 시간을 통해서, 목회에 기도와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앞에 서야하면서, 평안교회가 걸어온 지난 50여 년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모든 여성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미주한인의 날, 한인 이민의 역사와 미래를 잇다



제123주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 행사가 1월 12일(월) 오후 4시, 로스앤젤레스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된다. 본 행사는 미주한인재단 LA(KAFLA)이 주최한다.

1903년, 낯선 땅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한인 이민 선조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미주한인의 날은, 미주 한인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사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다. 올해로 123주년을 맞는 이번 행사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 세대를 향한 비전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된다.

행사는 감사예배로 시작하여, 한인 이민사의 의미를 조명하는 특별강연, 제123주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 선포식, 축하 만찬과 기념

음악회 등이 이어진다. 이를 통해 한인 사회의 연대와 화합을 도모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미주한인재단 LA는 “123년 전 이민 선조들의 믿음과 용기가 오늘의 미주 한인 사회를 세웠다”며 “이번 기념 행사가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새기고,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세워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인 동포는 물론,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제123주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 행사 일시: 2026년 1월 12일(월) 오후 4시 장소: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

남가주, 연합 기도회로 모인다

1월 19일 오전 10시 주님의 영광교회

제19회 미주한인연합기도회에서 개최된다.

각 교회의 중보 사역팀과 기도단체들 즉, 청교도 기도 동역자 기도회(강순영 목사), 월드쉐어 USA(강태광 목사), 세기모 서부지부(김영구 목사), CBS 중보 기도팀(안현숙 목사)이 함께하는 중보 기도팀 연합기도운동과 남가주 중보기도팀 연합기도운동과 남가주 교협(회장 김은목 목사) OC 교협(최국현목사)이 함께한다.

남가주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2개월마다 한 번씩 열리는 중보 기도팀 연합기도회는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 갈보리선교교회(심상은 목사) 등에서 개최된다.

제47회 미주성결교회(KEHC) 종회가 “성결인이여, 성결의 영으로 일어나라!”(롬 1:4)라는 주제로 4/13-16(월~목) 웨스틴 샌디에이고 베이비(Westin San Diego Bayview, 400 West Broadway, San Diego, CA 92101)에서 개최된다.

→1면 기사 <2026년 네비게이션>에 이어서 LA에서는 6월 12일, 15일, 18일, 21일, 25일, 28일, 7월 2일, 10일에 경기가 열린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종회가 5/5-5/8(화~금) 주제 “예벤에셀의 하나님”(삼상 7:1-12), 몽고메리교회(최해근 목사,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에서 열린다.

해외한인장로회(KPC, 구 KPCA) 종회가 5/12-14(화~목) 퀸즈한인교회(김바나바 목사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에서 열린다.

글로벌감리교회(Global Meth-

odist Church) 교단총회 8/30 일-9/5(주일~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위치한 샌튼 컨벤션 센터(Sandton Convention Centre)에서 열린다. 종회의 주제는 “거룩의 아름다움: 성령 충만한 삶, 거룩한 부르심”이며 글로벌감리교회 역사상 최초

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교단총회이다.

제45차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종회가 6/9-12(화~금) Church at the CrossChurch at the Cross (Orlando, FL)에서 개최된다.

미국장로교(PCUSA)는 6/22-7/2 워스컨주 밀워키에서 제 227

회총회를 개최한다.

제47회 미주성결교회(KEHC) 종회가 “성결인이여, 성결의 영으로 일어나라!”(롬 1:4)라는 주제로 4/13-16(월~목) 웨스틴 샌디에이고 베이비(Westin San Diego Bayview, 400 West Broadway, San Diego, CA 92101)에서 개최된다.

2026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2026년 1월 31일 까지

학위과정 안내 | DEGREE PROGRAMS OVERVIEW

학사 Bachelor of Arts

- 신학 BATh
- 기독교상담학 BACC

석사 Master

- 목회학 MDiv
- 기독교 교육학 MACE
- 선교학 MAICS
- 기독교 상담학 MACC

박사 Doctoral

- 선교학 DMISS
- 교차문화학철학 PhD in ICS
- 교육학철학 PhD in ES
- 상담심리학철학 PhD in CP

International Track

- English Track BATh, MDiv, MACE PhD in ICS, DMiss
- Chinese Track BATh, MDiv PhD in ICS, DMiss
- Spanish Track BATh, MDiv
- Indonesian Track BATh, MDiv

입학 문의 | ADMISSIONS CONTACT



입학처. (714) 525-0088 (ext 101)

이메일.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교육 인가 기관 | ACCREDITING AGENCY



입학 절차 | ADMISSIONS PROCESS



학생 혜택 | STUDENT BENEFITS

- 유학생 I-20 발행
- 선교사 및 목회자 참학금
- 연방정부 학비지원 FSA
- 온라인 수업료 통한 학비 취득 가능
- eBook Library Service 제공



미주복음방송 인재 모집

미주복음방송(KGBC)이 2026년을 맞아 방송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할 동역자를 공개 채용한다.

미주복음방송은 이번 공개채용을 통해 방송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사명으로 동행할 새로운 동역자를 찾고 있다.

이번 채용은 ▶ 아나운서, ▶ 음향 엔지니어, ▶ 영상 제작, ▶ 기획·홍보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정규직과 파트타임 채용이 함께 진행된다. 모집 분야별 세부 내용과 지원 요건은 공식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미국 내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자로, 관련 학과 전공자 또는 해당 분야 경력자는 우대된다. 이중 언어 구사자 또한 우대 대상이다.

입사지원 접수는 2026년 1월 5일(월)부터 1월 25일(주일)까지 진행된다. 지원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www.kgbc.com)에 게시된 공개채용 배너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입사 전 오리엔테이션 후 최종 입사로 이어진다.

제출 서류는 입사지원서(사진 포함)를 비롯해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자기소개 및 신앙고백서(1페이지 분량), 담임목사 추천서 등이다.

아나운서 지원자는 지정된 스크립트 녹음 파일을, 영상 제작 지원자는 제작 영상 링크 또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한다. 채용 관련 문의는 이메일 (am1190@kgbc.com)을 통해 가능하다.

공인 전문 채플린(CPC) 인증 수여식 개최

차세대 채플린 양성 위한 CPE·CPC 2기생 모집

전문 원목 협회 글로벌 네트워크 (Association of Professional Chaplains Global Network, APCGN, Dr. James Koo)는 지난 12월 28일(주일) 오후 3시 30분, 터스틴에서 CPE(Clinical Pastoral Education) 수료 및 공인 전문 채플린 인증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수여식은 병원, 교정시설, 군대, 호스피스, 지역사회 등 다양한 현장에서 영적 돌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플린들의 전문성과 교육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APCGN이 주관하는 CPE 및 CPC 인증은 채플린이 갖추어야 할 영적 돌봄의 탁월성, 전문 윤리, 지속적인 형성 과정을 충실히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자격이다.

특히 APCGN 는 이번 인증 수



APCGN, CPE 수료 및 공인 전문 채플린(CPC) 인증 수여식.

여식과 더불어 차세대 전문 채플린 양성을 위한 CPE·CPC 과정 제2기생 모집을 하고 있다. 2기 과정의 교육과정은 Zoom 온라인으로 실시간 교육하고 현장 Clinical Hours 는 APVGN 협회와 협력하는 Clinical Center 현장을 통해서 실제적 돌봄 능력 강화함으로 전문 채플린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균형 있게 형성하는 교육 프

로그램으로 구성된다.

APCGN 의 CPE 과정은 실제 사역 현장에서의 사례 중심 교육과 슈퍼비전, 자기 성찰을 통해 영적 돌봄 역량을 심화시키며, CPC 인증 과정은 윤리 기준과 전문성을 갖춘 채플린으로서의 공적 사역을 준비하도록 돋는다. 2기 과정은 목회자, 선교사, 병원·군·교정 사역 종사자 및 영적 돌봄 사역에 소명

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APCGN 협회의 대표인 제임스 구 박사는 “이번 수여식은 지난 한 해 동안 헌신적으로 훈련을 마친 채플린들을 축복하는 자리이자, 동시에 새로운 세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기회” 라며, “CPE·CPC 2기 과정을 통해 많은 사역자들이 전문성과 영성을 겸비한 채플린으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사는 CPE 수료자 및 CPC 인증 대상자와 가족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OC와 LA 지역에서 교정사역을 하는 피터 변 채플린의 격려사와 조언이 있었다.

이 단체에서는 CPE·CPC 제2기 과정을 지원자를 모집한다. 강의는 줌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10분에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문의: info.apcgn@gmail.com, <http://apcgn.org>, 949-667-0264/ 714-393-4595 (문자 가능)



창대장로교회, 27년째 이어진 성탄 사랑 나눔

샌버나디노 창대장로교회(이준준 목사) 사랑 나눔 선교회가 지난 12월 27일(토) 휴리스를 대상으로 사랑의 점퍼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선교회 측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계절 춥고 배고픈 시즌에 27년간 휴리스사역을 해온 창대장로교회. 사랑나눔 선교회가 올해도 사

랑을 나눴다. 매해 나눴던 점퍼 외에 신발, 가방, 모자, 식용품 등 이들이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 행복했다.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 계속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전화 951) 966-9191 주소: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위브릿지 연합 운동, 텍사스로 이어진다

달라스 2026 위브릿지 컨퍼런스가 오는 26일(월)과 27일(화), 텍사스 플라워마운드교회(최승민 목사)에서 개최된다.

“건강한 교회 세우기(연합, 섬김, 위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김귀보 목사(큰나무 교회 담임), 김경도 목사(플라워마운드교회 사역목사),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원로목사), 순해도

목사(달라스 코너스톤교회 담임), 허양희 사모(어스틴 주님의교회), 다니엘 박 선교사(순회선교사), 강태광 목사(World Share USA 대표), 문선영 대표(Wise California 대표), 홍장표 목사(달라스 수정교회), 이윤영 목사(샌안토니오 한인 침례교회), 이성철 목사(GMC 한미연회), 최승민 목사(플라워마운드교회 담임목사) 등이 강사로 섭

긴다. 이번 행사는 달라스 교회 협의회, 휴스턴 기독교교회협의회, 샌안토니오 교회협의회, 어스틴 교역자협의회, 기독일보가 공동 주최하며, ING(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가 주관한다. 원하트미니스트리가 기획을 맡았고, BTS 솔라와 TCN 텍사스 크리스천 뉴스가 후원한다. 등록 마감은 1월 19일(월)까지이며, 등록비

는 무료다.



아버지 밤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이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엔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Serge
PRESENTS
GCL을 개발한 Serge팀이 함께 합니다.
복음 중심의 삶 컨퍼런스

GCL
GOSPEL CENTERED LIFE
conference

복음 중심의 삶 컨퍼런스

복



내과 내분비 통합 진료 전문의
1월 1일 진료시작

환영합니다!

이현주

- HYUNJU LEE, MD
- 내과 · 내분비학 | INTERNAL MEDICINE
ENDOCRINOLOGY

내과



- 고혈압 진료 및 혈압 관리
-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관리
- 심장병 · 뇌졸중 예방 관리
- 만성질환 종합 관리
- 각종 예방 접종

내분비학



- 당뇨병 진료 및 혈당 관리
- 갑상선 질환 (기능 항진 · 저하)
-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
- 호르몬 불균형 관리
- 대사증후군 진단 및 치료
- 노화 관련 호르몬 변화 관리 등등



이현주 MD 개원식

선착순 250명에게
당일 빛은 떡과 푸짐한 선물 가방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날짜 2026년 1월 14일 (수)
시간 9:30 AM
장소 센터메디컬클리닉 가든그로브

센터메디컬 클리닉
가든그로브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B
Garden Grove, CA 92843

(714) 583-8569

8:30 AM - 5:30 PM (M-F)



한인 기사
무료 라이드 서비스



초고속 당일
병원 허가서 발급



남가주 최대
입원치료 가능



문화 생활
혜택

센터메디컬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메디컬그룹 (IPA)**입니다.

2026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 5월 뉴욕 개최

현장 선교사·선교사 자녀 600여 명 참여 예정... 세대 잇는 선교의 장 마련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가 오는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 퀸즈한인교회에서 제11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예수, 열방의 빛'(Jesus, The Light of the Nations·이사야 49장 6절)을 주제로, 전 세계 각지에서 사역 중인 한인 선교사들과 다음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동시대 선교의 방향과 과제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현장 선교사 약 400명과 선교사 자녀(MK)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KWMC 측은 대회를 통해 선교 현장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고, 세대 간 단절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선교 흐름을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강의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와 실천적 전략을 중심으로 한 소통형 대회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나흘간 '빛'의 여정 따라 구성된 대회 프로그램

대회는 나흘 동안 '빛'을 중심 키워드로 한 단계적 주제로 운영된다. 첫째 날은 '빛 오시다'를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교의 본질을 조명한다. 둘째 날에는 '빛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선교적 부르심과 선교사의 정체성을 다루며, 셋



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첫날 모습.

째 날은 '빛이 그리다'를 중심으로 동시대 선교 전략과 변화하는 선교 환경을 살핀다. 마지막 날은 '빛을 전하다'를 주제로 세대 계승과 파송, 미래 선교를 향한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KWMC는 이러한 주제 구성을 통해 선교의 신학적 토대와 현장 전략, 그리고 다음세대 선교로 이어지는 흐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했다. 특히 프로그램 커미티, 차세대 선교사 모임, 캠퍼스 사역 팀 등이 함께 참여해 세대와 사역 영역을 넘나드는 교류의 장을 마련됐다.

아트·기술·도시선교 등 12개 영역별 모임 운영

이번 한인세계선교대회에서는 선교 환경의 변화에 발맞춘 다양한 영역별 모임도 운영된다. 캠퍼스 선교, 도시 속 열방 선교(다문화·이주민 사역), 아트 인 미션(Art in Mission), 기술과 선교(AI·온라인·미디어), 교육, 비즈니스와 선교,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 미전도 종족 중심의 전방 개척 선교, 통일 선교, 난민 선교, 멤버 케어, 다음 세대 리더십 등 총 12개 주제가 마련된다.

KWMC 측은 각 영역별 모임을

통해 선교사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나누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전략을 함께 모색하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예술과 선교를 접목한 '아트 인 미션'과 인공지능·디지털 환경을 다루는 '기술과 선교' 영역은 변화하는 시대 속 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도로 주목된다.

대회 이후 주니어 컨퍼런스 개최

다음세대 리더십 계승 초점

한인세계선교대회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한인세계선교사회 주니어 컨퍼런스(KWMF Junior Conference)가 이어서 열린다. 이 행사는 선교 현장의 허리 세대인 30·40대 선교사들과 선교사 자녀를 중심으로, 다음세대 리더십을 격려하고 선교의 중심으로 세워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니어 컨퍼런스 참가 대상은 1976년 이후 출생한 현장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 약 200명이다. 참가자들은 뉴욕 지역 교회에 교회당 2명씩 입장료 대회 기간 동안 교제하며, 대회 이후에는 입장료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선교 현장과 지역 교회 간의 연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KWMC "세대를 넘어 하나 되는 선교 공동체 되길 기대"

KWMF 회장 송상천 선교사는 "이번 대회가 분열된 세대를 넘어 하나로 연결되고, 선교의 현장에서 다시 희망을 노래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11차 한인세계선교대회는 오는 2월 28일까지 1차 등록을 마감하며, 3월 31일까지 2차 등록이 진행된다. 참가 신청과 자세한 안내는 KWMC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윤준 기자

김균진 한국신학아카데미 원장 “부활은 하나님 승리”



한국신학아카데미 원장 김균진 박사

야당의 계속되는 투쟁, 정치인들의 이기심과 부패, 계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청년 세대의 좌절, 환율·불가 상승, 중소기업의 고충과 도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국 개신교회의 현실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청년들 보기 가 어렵고, 남아 있는 청년들의 눈에서도 미래의 비전과 꿈을 찾기 어렵다"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꿈

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설교를 듣기 어렵고, 현실에 순응하도록 길들이는 설교가 대부분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북한 상황에 대해서도 "감옥처럼 되어버린 북한의 현실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파괴되고 굶주림으로 사망자

가 발생하던 나라가 세계 10위권 선진국으로 성장한 것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적"이라며 "우리 민족의 저력을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장은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한 '대파멸 중심의 종말신앙'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통속적 종말신앙은 철저히 반기

독교적이며 패배주의적인 것"이라

며 "만일 대파멸이 세계의 마지막이라면 악의 세력이 하나님에 대해 승리하는 꽂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파멸과 죽음,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뜻한다"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선과 정의, 생명의 힘이 세계를 유지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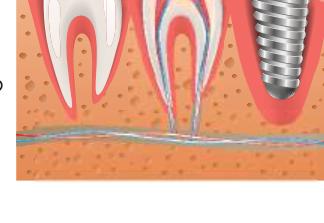
그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기적이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승리와 통치를 믿으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이땅에 충성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노형구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터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의 초기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SMG는 올해도 당신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SMG
서울메디칼그룹



홍보대사 고두심

[2026 신년 인터뷰] “복음으로 진검승부해야 할 때” 류응렬 목사

신학은 책에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져야… 30~40대가 다시 교회로 향하는 이유

2026년 신년을 맞아 미주 기독일보는 미주 주요 목회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인 이민교회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한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세대 구조 변화 속에서 이민교회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신년 인터뷰는 말씀의 본질, 다음 세대,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지역 교회와의 연대라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순서로는 미동부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인 와싱톤중앙장로교회의 담임 류응렬 목사를 만났다. 와싱톤중앙장로교회는 개혁신학 위에 세워진 말씀 중심 교회로, 예배와 훈련, 선교와 다음 세대 사역을 균형 있게 이어왔다. 특히 류 목사는 종신대학교에서 신학과 설교를 가르친 교수 출신 목회자로, 이론에 머무르지 않는 신학,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강조해 왔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교회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30~40대 성도 비중이 높아지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 속에 있다. 류 목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미국 교회의 희망을 강조하는 한편, 이민교회가 직면한 현실적 과제, 말씀 중심 목회의 실제적 열매, 다음 세대 사역의 구조적 전환, 그리고 2026년을 향한 교회의 방향과 비전들을 차분히 짚었다. 다음은 류응렬 목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로서 한인교회 뿐만 아니라 미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관심 또한 크실 것입니다. 에즈베리 부흥 현장을 2023년에 직접 다녀오신 것으로 압니다. 어떤 계기로 방문을 결단하셨습니까?

제가 결단해서 갔습니다. 에즈베리 부흥은 2023년 2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약 2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에 있었고 박사 과정 수업을 인도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갈 때까지 끝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현장은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다고 느꼈고,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나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갈 때까지 이게 끝이 안 나도록 해 달라’고 기도했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목회자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셨을 때 어떤 장면



와싱톤중앙장로교회 담임 류응렬 목사

을 보셨는지, 당시 분위기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들어갔을 때가 2월 20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마지막 날일 줄은 몰랐습니다. 밖에 줄이 정말 길었고, 밖에서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가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까지 하나님 은혜를 충분히 받았으니, 이 부흥의 전달자(Carrier of this revival) 가 돼서 나가라”는 선포가 있었고 공식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 뭔가 강렬하고 특별한 현상을 떠올리기 쉬운데, 오히려 현장은 차분하고 조용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도 “예수 이름, 당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고” 같은 고백이었고, 흔히 말하는 전문 찬양팀이 아니라 학생들이 조용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홍 교수’로 알려진 분도 만나 인터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만나셨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요?

현장에서 그분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당시 CNN, NBC, ABC도 있던 때라 사람들이 그분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분은 학교에서 오랫동안 몸에 앞뒤로 부흥을 열망하는 싸인판을 들고 다니며 복음을 전해 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부흥을 외쳐

온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 과정을 밟았고,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신약 교수로 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이 학교에 방문교수로 머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부흥 운동을 일으켜라’고 하셔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 자리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또 2020년에는 ‘기도만 하지 말고 싸인판을 메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식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샌드위치 맨’처럼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뉴욕으로 가라. 뉴욕의 노숙인을 섬기라. 부흥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가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2023년 초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홍콩에 5주를 머문 뒤 2월 7일 미국으로 돌아왔고, 2월 8일 뉴욕에서 노숙인을 위해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노숙인들을 보며 절망했는데 하늘을 보니 본인 표현으로 ‘확 밟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예배 이후 11시 무렵 기도가 일어나면서 부흥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 또한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 이후의 열매도 확인하려고 다시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부흥이 지나간 뒤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찾았습니다. 한 번 지나가고 썰물처럼 빠져나갔는지, 아니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영상 팀과 목회자들과 함께 다시 갔습니다. 그때 신학교 총장인 팀 텐트 박사(Dr. Tim Tennant)를 만났고, 존슨 교수(Dr. Johnson), 린 교수(Dr. Lim)도 만났고, 변화 받은 학생들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제가 “부흥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라고 묻자, 약 300명 정도가 부흥 이후 각자의 고향과 나라로 돌아가 이 부흥을 간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즈베리에서 시작된 불길이 다른 지역으로, 심지어 다른 나라로도 번져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흥을 우리 안에만 간직할 게 아니라 밖으로 외쳐야 한다’는 흐름도 확인했습니다.

교수님들 가운데 한 분은 본인의 변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신은 신학자였지만 예전처럼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이번 일을 겪으며 ‘실천적인 삶으로 살아야겠다’는 변화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변화도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금식기도’라는 단어는 알아도 실제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편인데, 한 교수님은 이를 금식기도를 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더군요.

학생들의 변화도 인상 깊었습니다. 한 학생은 청년기에 흔히 겪는 성적 충동이나 정욕, 여러 갈망들이 자신을 지배했는데, 부흥 집회

에 거의 매일 참석하면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방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품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총장님이 부흥의 배경에 대해 ‘학교 내부의 일반 교수나 행정이 아니라, 아시아권 교수들과 목회자들의 새벽기도가 중요한 배경이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신 것도 의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 5시 반쯤 장소가 없어 유치원 방에서 팀을 만들어 기도했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알고 계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현장을 본 것뿐 아니라 부흥 이후의 모습까지 확인한 경험이 됐습니다.

-미국 교회 전반을 놓고 볼 때 “미국 교회의 미래는 희망적인가”라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큰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은 신앙고백의 토대입니다. 동시에 실제적인 근거를 데이터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 주요 교단이 극심한 교인 수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성장한 흐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성회(Assemblies of God)는 5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소개됐고, 저희 교단인 PCA는 10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또 독립교회(Non-denominational)도 급성장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소하는 교단들의 경우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거나 성경을 믿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동성애 수용과 같은 흐름을 포함해 자유주의 신학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대로 성장한 교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진리로 그대로 믿고 복음 위에 견고히 서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복음이 희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미주 한인 교회도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점은 미주 한인교회에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민자 수가 줄어 들어 고민이 있다는 말도 있지만, 복음으로 진검승부할 때 복음이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핵심이라 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김대원 기자 [다음호에 계속]

이용태 내과

한인사회의 봉사자로서 턱을 닦아온
Dr.이용태의 외길 인생 봉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성심껏 진료하겠습니다.

MEDICARE PPO
각종 일반 보험으로 치료합니다

종합검사 전문

하지정맥류
실핏줄 치료전문

한국종합의료원
YELLOW CROSS MEDICAL CLINIC, INC.

Tel. (323)731-0681 903 Crenshaw Blvd. #302., Los Angeles, CA 90019 leeyongtae@yahoo.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 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길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후 8:00
KM 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가명훈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서 드려집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encecgcc.org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종교동부 오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GRCEM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정유성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용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성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1부 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9:30 장막예배 오전 11:30 영어성경부 오전 9:30, 11:30
3부 예배 오전 11:30 영어성경부 오전 9:30, 11:30
한국대학원대학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이우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성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yfirstchurch.org

1부 예배 오전 7:00 성인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 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9:15 토요일찬양예배 오전 5:30
3부 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30

박신웅 담당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 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un@hanmail.net

1부 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의 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종교동부 오전 11:40 우영화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 예배 오전 11:40 금요성경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구경모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영어예배 오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최원일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예수의 은혜로 세상을 밝힐 예장장로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美 복음주의 지도자들 '마두로 체포' 환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1월 3일(현지시간) 미군이 수도 카리카스와 다른 도시들을 폭격한 후 베네수엘라의 권위주의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CNN 보도 화면 캡처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카리카스에서 진행된 군사 작전 중 생포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가운데, 미국 전역의 주요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이를 정의와 영적 해방,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평가하며 공개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카리카스에서 실시된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와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가 체포됐으며 미군의 인명 피해나 장비 손실 없이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작전을 “최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 작전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정권이 이뤄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 행정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마두로는 마야 및 무기 범죄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인물로, 이른바 ‘태양의 카르텔(Cartel of the Suns)’의 수장이며, 미 마약보상프로그램 사상 최고액인 5천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린 첫 사례였다. 그는 수년간 FARC 등 무장 단체와 연계된 마약 테러 활동과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주도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미경 기자

스페인 복음주의 교회 4,763곳으로 증가



© Unsplash/Henrique Ferreira

스페인 내 복음주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외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다원주의의 관측소(Observatory of Religious Pluralism)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스페인 전역의 복음주의 교회 수는 4,763곳에 달했다.

이번 수치는 개인의 종교 신념에 대한 전국 단위의 종합 통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종교 지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페인의 종교적 구성 변화가 신앙 고백 통계보다 등록된 예배 공간의 증가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다원주의와 공존 재단(Pluralism and Coexistence Foundation) 산하에서 운영되는 종교다원주의의 관측소는 지난 20여 년간 스페인 전역의 소수 종교 예배 공간을 추적·조사해 왔다.

‘에반젤리컬 포커스(Evangelical Focus)’가 보도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복음주의 기독교는 현재 예배 공간 수 기준으로 스페인에서 가장 정착된 소수 종교로 자리 잡았으며, 전국적으로 5,000곳에 근접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카탈루냐가 1,010곳으로 가장 많은 복음주의 교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드리드가 855곳으로 뒤를 이었다. 안달루시아에는 744곳의 복음주의 예배 공간이 있으며, 발렌시아 자치주는 510곳으로 네 번째를 차지했다. 관측소는 스페인 전역에서 소수 종교가 사용하는 예배 공간이 전반적으

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2만 2,922곳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복음주의 교회와 무슬림 예배 공간은 현재 약 2,000곳에 육박하며 종교 인프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통계는 스페인의 종교 정체성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다원주의와 공존 재단은 최근 ‘2025년 스페인 종교 및 신념 바로미터’를 발표하며, 종교 비소속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42%가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여기에는 종교에 무관심한 이들, 불가지론자, 무신론자가 포함된다. 신앙을 가진 이들 가운데에서는 가톨릭이 여전히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타 종교 전통을 따르는 인구는 8%에 그쳤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세속화 추세 속에서도 소수 종교들이 점차 가시성을 높이며, 스페인의 종교 환경이 한층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스페인 사회학연구센터(Centre for Sociological Research)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종교적 신념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스페인이 과거보다 더 세속화되는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더욱 다원화된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구원의 능력은 행위가 아니라 복음에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댄 델젤 목사의 기고글인 ‘믿음의 열매가 구원을 만들어 내는가?’(Does the fruit of faith generate salvation?)를 4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델젤 목사는 네브래스카주 파필리온에 있는 리디미 루터 교회(Redeemer Lutheran Church in Papillion)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연쇄상구균 인후염(strep throat)은 세균 감염으로, 편도선 부종, 발열과 오한, 삼킴 곤란, 몸살, 림프절 암통, 피로감 등 의 증상을 유발한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페니실린은 대부분의 연쇄상구균 인후염 치료에서 일반적으로 1차 선택 약물이다. 수십 년 동안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A군 연쇄상구균을 확실히 제거한다.”

페니실린의 ‘열매’는 항생제가 세균 증식을 멈추게 하면서 몸 상태가 호전된다 는 점이다. 그러나 그 열매가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페니실린 자체다.



댄 델젤 목사.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능력은 믿음에서 흘러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복음 메시지 그 자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로마서 1:16). 여기서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두나 미스(dunamis)’로, 이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성이 자신의 구원의 근원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CP 기자인 라이언 폴리가 최근 보도했듯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다수는 ‘선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천국에 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행위로 의로워진다는 이 거짓 교리는 대단히 인기가 있지만, 결국 사람을 잊어버린 상태와 정죄 아래에 머물게 한다. 구원의 능력을 담고 있는 유일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과 희생적인 죽음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요한복음 3:36).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는 바로 복음 메시지 자체다. 만일 자신의 고귀한 행위가 구원의 능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열매는 결코, 다시 말해 결코, 누구의 구원의 원인이나 근원이 되지 않는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며, 결코 벌어서 얻을 수 없다(로마서 6:23 참조).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값없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완전히 공짜’가 아니라 생각하게 만들고자 한다. 악한 영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물론교 교리다. 물론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후에”(니파이후서 25:23). 물론교의 창시자 조셉 스미스는 구원이 마치 막대기에 매달린 당근과 같아서, 충분히 선하게 산 물론 신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나 선해야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거짓 교사들은 결코 답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들을 끊임없는 추측과 노

력 속에 방치하며, 천국 입장을 얻기 위해 애쓰게 만든다. 사탄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도록 속이는데, 이는 행위 중심의 의식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값없는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기 때문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마이크 와일더는 한때 몰몬교의 대제사장이었으나, 기독교인이 되면서 그 조직을 떠났다. 그는 몰몬교인으로 30년을 지내는 동안, 예수의 피와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도덕성에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죄를 위해 예수께서 피 흘리며 죽으신 십자가에 의지하고 있는가? 찰스 스필전(1834~1892)은 이렇게 말했다. “도덕성은 당신을 감옥에 가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구원에 대한 믿음은 ‘몰몬 마이크’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 마이크’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선언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야고보서 2:17).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언제나 선한 행위를 낳기 때문이다. 믿음의 열매가 실제인 이유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포도나무가 실제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 하셨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요한복음 15:5). 살아 있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에베소서 2:5)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구원의 근원이 아니라,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 안에 거하시는 분을 드러내는 증거다.

구원은 예수와의 관계에서 가장 처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값없는 선물을 받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사도행전 16:31).

그렇다면 벨립보서 2장 12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주님을 향한 경외와 존경이 너무 커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기여한다는 뜻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바울은 “벨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성도에게”(벨립보서 1:1) 편지를 쓰고 있었다. 성도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다.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가는 순간, 영원한 생명은 이미 우리 것이 된다.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 있지 않으면, 곧 구원받고 있롭다 하심을 받고 거듭나며 속량되고 용서받지 않으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다. 이는 육체적으로 살아 있지 않으면 몸을 단련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바울은 벨립보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벨립보서 3:9)를 상기시킨다. 그는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이 의를 철저히 설명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로마서 3:22).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로마서 3:26).

만일 당신이 자신의 행위로 영혼을 구원받으려 하고 있다면, 이제는 당신의 죄를 지불하시고 “자기 피로 사신”(사도행전 20:28) 십자가에 의지하시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죄 사함을 받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가 불어야 할 길이다.

최승언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미지방주) 오후 8:3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후 5:20(화-금) 오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김정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평일(월~금) 06: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 예배 06:00AM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gmcg.org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대학령년부 (College) 오전 10:30
위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 (3-5) 오전 10:30

주님 CHURCH

주일 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19 Email: joonim0623@gmail.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후 9:10
3부예배 오후 12: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후 6:00(토) 오후 6:30(일)

ECO선한목자교회
교화여, 성숙하리!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학년)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어부 (24개월 이상) 11:00 AM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church.com

장수영 담임목사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강문수 담임목사



LA 북부 지역,拉斯ベ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등이오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학여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예배(평일)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일요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오후 6:00(화~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예배 오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 예배 2부 오후 12:30
새벽예배 오후 6:00(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11:00 교육부 예배 주일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 6:00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후 11:15 (한국어, 스페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Quesada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조응철 담임목사

2부 오후 11:00: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중요예배 수요일 오후 11:30 새벽기도회 오후 7:00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Y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11:30 PM 새벽기도회 오후 7:00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42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11:30 PM 새벽기도회 오후 7:00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O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수비조코미Beauty College 최초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미용가협회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초강력 정체제 \$70

최소속도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청서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호박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OP PLUMBING SERVICE, INC. License# 1139798

얼께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어노인팅교회 'LA 카운티 정신건강 강좌'

영호육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어노인팅교회(신경섭 목사)가 새해 '지역교회와 함께 하는 LA 카운티 정신건강 강좌'를 1월 9일(금)부터 2개 강좌로 확대해 개최한다. 카운티 정신건강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강좌를 지역교회에서 실시해 교인들의 정신 건강을 미리 돌아보고 예방하는 취지의 행사이다.



왼쪽에서 첫번째가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정명화 프로모터. © 어노인팅교회

지난 강좌 참석자는 "보통 정신 건강 하면 '나는 아니야'라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교회에서 주최해 편안하게 참석할 수 있었다. 정명화 강사가 좋은 내용, 필요한 내용을 쑥쑥 알아듣게 전달해 큰 도움이 되었다. 평소 경험이나 문제를 편하게 나눌 수 있어서 매번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어노인팅교회 신경섭 목사는 "지난해 시범 강좌 때 반응이 좋아 올해는 시니어/중년 2개반으로 분반하여 진행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우울증/ 불안/ 기억력 쇠퇴와 같은 일반적인 주제와, 저장 강박, 스캠 사기/ 할러데이 블루

누고 배울 수 있는 모임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초대의 말을 전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 강좌'는 예방을 목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강좌로 최소 5명 이상 구성되면, 해당 단체의 공식 장소와 시간을 의논해서 지정하고, 프로모터가 출강하는 형식의 대면 모임과 비대면 Zoom 모임이 있다.

단, 자료 준비를 위해 전화로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전화 224-622-9183, 이메일은 mcc3694@yahoo.com, 2902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 최승연 기자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발견하기

GIFT 전인코칭전문학교(원장 리디아 전 박사)는 지역 교회와 함께 지역 사회의 전인 건강(마음·관계·영성)을 높이기 위한 교회-커뮤니티 아웃리치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더블레싱교회(담임 피세원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 성도는 물론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전인 치유 세미나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신앙이 있으나 마음의 쉼이 필요한 분, 관계와 내면을 돌아보고 싶은 분, 지역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성장을 경험하고 싶은 분이다.

세미나는 임상심리학 박사인 리디아 전 박사(ICF PCC 전문코치)와 조셉 전 박사가 함께하는 4주간의 따뜻하고 안전한 회복의 여정으로 초대하고 있다.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며, 장소는 더블레싱교회(애나하임)이다. 일정과 각 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20(화) 주제: 나의 과거는 진짜 과거인가?

1/27(화) 주제: 나는 타인과 진짜 어떻게 관계하는가?

2/3(화) 주제: 나는 하나님과 진짜 어떻게 관계하는가?

2/10(화) 주제1: 성경적 관점

에서 본 전인치유, 주제 2: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 발견하기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구글 폼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1SIF2c2azq5JojFlFzReLJkk5mtkizFwKk_-mEaSxlarvIA/viewform)으로 신청하면 되며,



문의는 GIFT전인코칭 전문학교 1기생 최혜라 담당자 (949-331-0067)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라구나힐스 연합감리교회 림학춘목사 은퇴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를 개척하여 28년동안 목회해 온 림학춘 목사가 지난 11월 30일 돌연 은퇴했다.

림 목사는 수개월전 악화된 뇌종양으로 인해 은퇴 예배에서도 은퇴

사를 전하는 대신 성도들에게 겨우 큰 절을 하는 것으로 은퇴인사를 대신했다.

건강이 악화된 림 목사의 이 같은 결정에 성도들은 애석해 했으며, 은퇴하는 림 목사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림 목사 은퇴예배에서는 이은철 원로목사가 설교했고, 감리사는 "지난 해 같은 지방에서 은퇴한 박용삼 목사를 내년 6월까지 임시목사로 파송 한다"고 발표했다.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25년 건축의 딛이고 지금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견적
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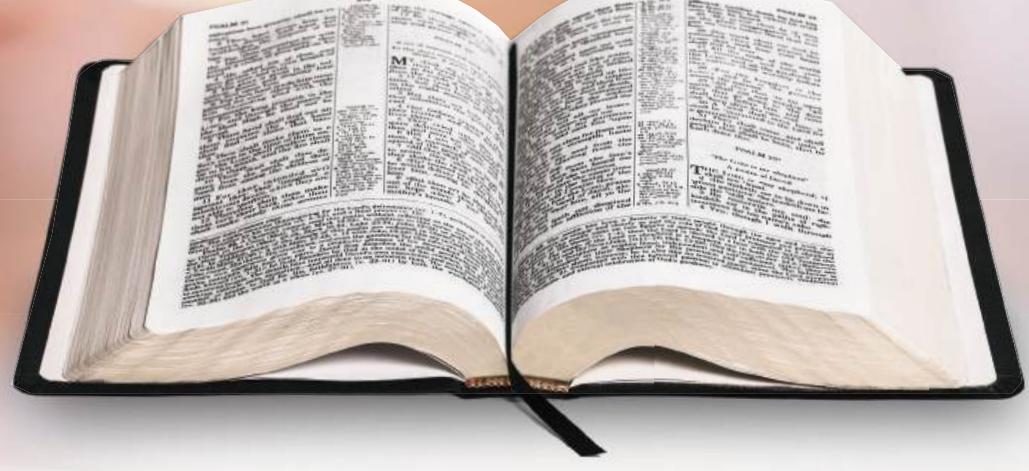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성경필사 장학생 후원자 모집

제3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16~17)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와 자극적인 콘텐츠 속에서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가 다시 말씀 앞에 서도록 돋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미주 기독일보는 올해도 신약성경 6권 필사 장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로마서까지,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써 내려가며 그들의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돋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까지 총 34명의 장학생이 선정되어 말씀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글을 적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인생의 방향을 세우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장학생 한 명을 세우는 것은 한 인생을 세우는 일입니다.

★ 말씀을 물잡은 다음 세대는 교회를, 가정을, 이 땅의 미래를 일으립니다.

이 귀한 34명의 장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말씀 안에서 걸어가도록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분들은 이들에게 전달될 장학금 후원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결단이 다음 세대에게는 한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됩니다. 이들의 손끝에서 써 내려가는 말씀 한 줄 한 줄이 장차 이들을 세우는 능력과 생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귀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 감사합니다.

지난 1기와 2기 장학생들이 고백한 은혜의 이야기

“필사하는 동안 제 삶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가 불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 필사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장학금 1인당 \$1,000

문의 : 기독일보 213-434-1170

이메일 : chdailyreporter@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기독일보



주최 : 기독일보

주관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 새라 김 칼럼

캘리포니아, 진리를 수호하는 교사들과 함께 학부모들 법정 승리거두다!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수년간 주정부 의원들이 트랜스젠더 비밀 유지 정책들을 추진해 온 가운데, 최근 판결에서 그런 정책들이 미국 헌법을 위반한다고 선언하며 강력한 법적 비판을 가했습니다.

미라벨리 대 을슨 (Mirabelli v. Olson) 사건에서 로저 T. 베니테즈(Roger T. Benitez)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주정부의 소위 '학부모 배제 정책-Parental Exclusion Policies' 이 위헌이며 "영구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정책은 학교 관계자들이 미성년 학생의 성 정체성 또는 '사회적 전환'을 학부모에게 숨겨야 한다는 것을 합법화 시켜준 정책입니다.

주 교육부 및 의원들의 비밀 유지 정책이란?

수년간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루 본타(Rob Bonta)를 비롯한 주정부 의원들은 학교가 학생의 성 정체성이나 표현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숨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저희 단체 TVNEXT와 동역 단체들이 반대해 온 수많은 악법을 의무화하고 실행해 왔

습니다. 법무장관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주 정부는 성 정체성을 숨길 수 있는 포괄적인 개인의 "권리"'의무화는 부모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 Rob Bonta 를 비롯한 그 행정부가 내놓은 성명서입니다.

"여러분은 연령에 관계없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는 본인의 허락 없이 부모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본인을 LG-BTQ+로 '공개'할 권리가 없다."

이 성명은 모든 학군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비밀 유지 정책과 교육을 정당화하는데 활용되었지만, 이번에 연방 법원이 판결한 바와 같이, 그러한 권리는 미국 헌법에 따라 부모의 기본적 권리나 교사에게 부여된 보호를 헌법적으로 우선할 수 없습니다.

'미라벨리 대 을슨' 사건 소송 과정: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교사인 엘리자베스 미라벨리와 로리 웨스트가 제기한 소송으로, 두 사람은 소속 교육구(에스콘디

도 연합 교육구)의 정책에 따라 학생이 학교에서 다른 성별 정체성이나 대명사를 채택했을 때 학부모에게 이를 숨겨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법적 투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로리는 모두 수십 년의 교육 경력을 가진 노련한 교육자이자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학생들을 사랑하며, 정직함과 자녀 양육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를 믿는 평범한 시민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해당 학군의 '학부모 배제 정책' 통보를 받고 신앙의 선택을 했습니다. 학교측의 강요는, 그들의 신앙과 윤리를 저버리고 학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캘리포니아 정부로부터, 정부에 순종하지 않은 엄청난 댓가(벌칙, 벌금, 해고 등등)를 감수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두 교사들은 젠더 이데올로기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저희 단체와도 오랜 동역을 해오고 있는 토마스 모어 협회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요점: 법원은 공립학교에서 적용되는 캘리포니아주의 성별 비밀 유지 제도가 다음의 기본 권리들을 침해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

교사의 표현의 자유 및 종교적 실천에 관한 수정헌법 제1조 권리

가족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핵심 헌법 원칙 이번 판결이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와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정리: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극적인 정책 전환을 합법적으로 주장할수있다. 교육구의 비밀 유지 정책은 더 이상 시행될 수 없다. 공립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성별 불일치를 표현할 경우, 학부모 및 보호자는 연방 헌법상 해당 사설을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교사는 이제 학생이 학교에서 성별 불일치를 표현하거나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질 경우 학부모에게 자유롭게 알릴수 있다. 주 정부 관계자들은 더 이상 학교가 그러한 정보를 "은폐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 에서 보세요.

■ 민종기 칼럼

[신년 메시지]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해



민종기 목사
총현선교교회 원로목사

의 연약함, 해결하기 힘든 상황 그리고 신음하는 가정과 사업을 가지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쭈과 담즙 같은 고초와 재난이 있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확인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나라가 망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히 무궁"하시고 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다"라고 고백합니다(애 3:22-23). 예수님도 제자들이 당한 풍파를 잡아주시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요 6:20) 말씀하십니다.

청년 다윗도 혜성처럼 역사에 등장하지만, 왕이 될 때까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장인에게 버림받고 추적당하며, 동굴과 광야를 전전하고, 결국 타국의 왕에게 몸을 의지하려다가 미친 척하고, 국외에서 모든 가족과 재산을 잃었다가 찾으며,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식과 백성의 반역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생과 절박한 위기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곧 "날마다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친송할지로다"(시 68:19).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시 68:5). 그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회복시켜 가족과 함께 살도록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끄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분, 곧 사회적 약자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68:6).

우리의 짐을 지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기업을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흡족한 비를 보내사 우리의 기업이 곤란할 때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회중을 그 나라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68:9-10).

더 나아가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은 원수와 대적을 물리치시는 왕이십니다. 그는 바산의 높은 봉우리들이 시온산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 모든 이방의 영적인 공격을 물리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68:15-17). 바산(Bashan)은 지금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입니다. 전통적으로 그곳은 아나 자손과 유사한 네피림으로 여겨지는 르바임(Rephaim) 거인, 바산 왕 옥(Og)의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군사적 영역의 승리를 가져오는 분이 뿐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승리하시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계시가 보여준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2026년은 아무리 '고난의 적토마'가 무섭게 달릴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삶의 고비를 잡으시고 평안의 안식처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 올해도 우리와 명예를 같이 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리켜 담장을 넘게 하십니다.

이 비상한 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마음의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 상상력"(spiritual imagination)을 우리의 심령에 창작해야 합니다. 영적 상상력은 어두운 현실에 매이지 않고 흑암의 구름을 뚫고 비상하게 만드는 영혼의

엔진입니다. 그 엔진은 죄와 낙심의 중력을 이기고 우리를 영적 궤도에 옮겨놓는 믿음의 실제적 사용입니다. 다윗이 말씀으로 영혼의 건강을 누리고, 비열한 인간 군상 속에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장애물을 날마다 극복하며 전진합시다.

둘째, 병오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긍정적 발상"으로 살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사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이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루야마 시계오라는 동서양 의학을 동시에 공부한 의사 『내내 혁명』이라는 책 속에서 "플러스 발상"을 제안합니다. 그는 긍정적인 생각이 '베타-엔돌핀'이라는 강한 뇌 내 모르핀을 분비하여, 영육의 건강을 유지 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2026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love bridge)가 되어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짐을 지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전달하여, 사랑의 파이프라인, 곧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랑을 표출해야 합니다.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치유의 말과 함께, 작은 도움과 정성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2026년 우리 시간의 상자를 사랑의 열매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토요일, 늘 다니던 동네 이발소를 찾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손질하시던 집사님은 그동안 짓물려 아팠던 손바닥 사진을 보여주시고, 이제 다 회복된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 전 고무장갑을 끼고 이발하시던 집사님의 앓던 손바닥을 생각하니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수의 성도가 고통스러운 것은 숨기다가 치료된 후에 아픔을 고백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목회자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않으려는 고운 마음씨에 감동하게 됩니다.

종종 사람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이웃이 돋기에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은 사람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능하신 분입니다. 2026년 병오년을 여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도 자비롭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에도 지난 2025년의 고통을 이어가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민자의 다수 가 깊은 고통, 강력한 스트레스, 병마와 육신

우리의 짐을 지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기업을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이커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拉斯, 이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리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번호 1-877-580-2424 삼우수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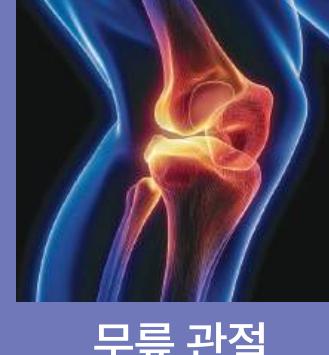
JOINT and JOINT

고통스럽고 오래가는 관절 통증과 연골 손상엔
귀생당 조인트 앤 조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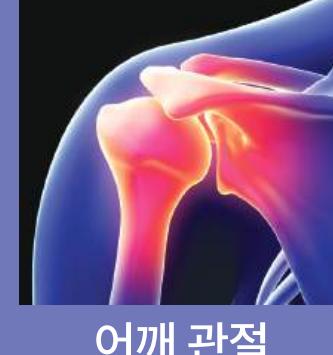


귀생당
조인트 앤 조인트 -
"당신의 관절
다시, 편안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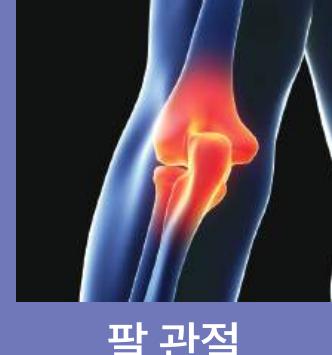
귀생당 JOINT & JOINT는 연골과 관절의 핵심 성분인
천연 콘드로이친과 글루코사민을
주요 성분으로 관절과 연골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무릎 관절



어깨 관절



팔 관절



귀생당 JOINT & JOINT는 관절과 연골 건강에 좋은 영양성분들인
보스웰리아, 터메리, MSM의 천연 화합물을 염선하여 재 구성함으로
관절, 연골 손상 예방 및 보호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완화해서 관절
통증을 줄이고 연골 손상 회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JOINT & JOINT의 효능과 효과

- 관절 연골과 기능 개선
- 혈액이 연골 내로 흡수되어 충격완화 기능에 도움
- 관절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반응을 억제
- 항산화, 항염증 작용으로 염증억제, 통증 완화
- 콜라겐 생성을 개선하여 뼈와 연골을 튼튼하게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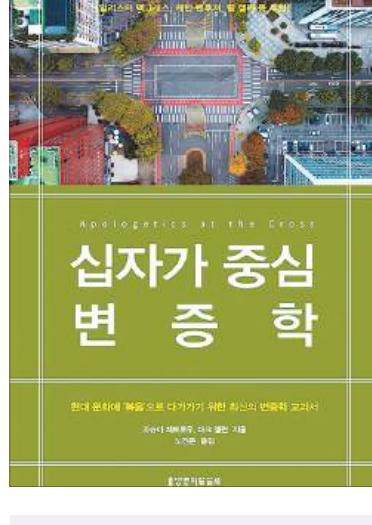


213.384.3333

www.kiseidousa.com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변증은 학문 아닌 복음으로 다가가는 것

변증 종합 선물세트 '십자가 중심 변증'의 4가지 특징



십자가 중심 변증학

조슈아 채트로우 · 마크 앤런
| 노진준 역 | 생명의말씀사 |
472쪽 | 30,000원

이 책은 한국 교회에서 전문가만의 활동으로 여지는 변증에 대한 합당한 관심과 주목을 집중시킨다. 먼저 성경에서 발견되는 변증 모델들을 살피고 변증학이 역사적 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추적하며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변증의 기초를 한 권에 통합하고 정리하고 해석한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베드로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독교에 대한 무관심과 회의와 반감이 커지는 이 시대, 결국 변증이 핵심이다

변증학은 기독교를 변호하거나 기독교로 개종을 권하기 위한 설득과 논증에 큰 유익을 주는 학문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증학이라는 통로를 지나 복음을 만나게 되었는지 셀 수 없을 정도다.

사실상 변증학에서 학문의 성격을 벗기면 변증이 남게 되는데, 기독교는 십중팔구 변증이라는 방식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뛰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수님은 형식주의로 변질된 유대교 사상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의가 담긴 새로운 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학하였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고전 9:22)” 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헌신했다. 기독교 교리는 허공에 올리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파고들어 마음에 심기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변증의 성격을 갖기 마련이다. 문제는 어떤 변증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유익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TGC에 의해 ‘변증 및 전도 분야 올해의 책’에 선정된 <십자가 중심 변증학>의 공동 저자 조슈아 채트로우(Joshua Chatraw)와 마크 앤런(Mark Allen)은, 그동안 변증학 서적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장점을 하나로 통합한 훌륭한 입문서를 썼다. 채트로우는 비슷 신학대학원에서 변증학과 전도를 가르치는 실력 있는 학자이고, 앤伦은 룰링스 신학대학원에서 변증학과 문화 참여 분야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이다. 두 사람이 쓴 책은 팀 켈리, 알리스터 맥그래스, 케빈 벤저, 대럴 복 등의 추천을 받았는데, 특별히 켈리는 “저자들은 변증학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존중하며 소개하고, 여러 학문과 사상가의 통찰을 통합한 자신만의 길을 제안합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6쪽)”라고 평가했다.

변증학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은 아마도 고전적 변증, 증거주의 변증, 전제주의 변증, 경험적 변증의 개념이 무엇인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변증학 서적은 저자가 추구하는 방식을 칭송하면서 나머지를 비평적으로 다루는 편인데, 채트로우와 앤런이 쓴 이 책은 성경이 말하는 변증의 특징을 다루면서(1-2장), 동시에 역사적으로 기독교 변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략적으로 소개한다(3-4장). 그리고 비교적 현대의 변증 방법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제시한다

(5장). 이 책은 그 중 어느 하나의 변증 방법을 취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모든 것을 통합해 가장 이상적이면서 성경이 묘사하는 변증의 특성을 갖춘 ‘십자가 중심 변증’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데 이른다(6-9장). 십자가 중심 변증의 네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말과 행동을 통해 십자가로 인도하기 ②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십자가를 닮은 겸손 ③복음을 위한 전인적인 호소 ④십자가 렌즈를 통한 상황화(194쪽). 독자는 이 부분에서 채트로우와 앤런이 제시하는 변증 방법이 단순히 학문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책의 부제는 ‘현대 문화에 <복음>으로 다가가기 위한 최신의 변증학 교과서(An Introduction for Christian Witness)’이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증언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 안에서 이뤄지고, 복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말과 행동 즉 인격으로 다가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나은 교리와 세계관을 가지고 누군가의 지성과 세계관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그들 영혼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겸손과 온유로 옷 입어야 한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네가 진실로 찾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진 복음에 있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채트로우와 앤런은 마지막 10-13장에서 후기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십자가 중심 변증 방법을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기독교를 향한 여러 비판에 어떻게 겹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헤리 클라스존 블레커(Gerrit Claesz Bleker, 1593 -1656)의 베일립이 무어인에게 세례를 주다(Philip Baptizes the Moor, 1640년경).

손히 대답할 수 있을지 소개한다. 보통은 증거주의 혹은 전제주의로 변증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십자가 중심 변증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 가이드를 제공한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하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얼마나 겸손하게, 전인적으로 호소하셨는지, 청중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배려하며 다가가셨는지 생각해 볼 때, 이 책이 제시하는 십자가 중심 변증 방법이 정말 필요하다는 확신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증법을 고집하는 학문이 아니라 여러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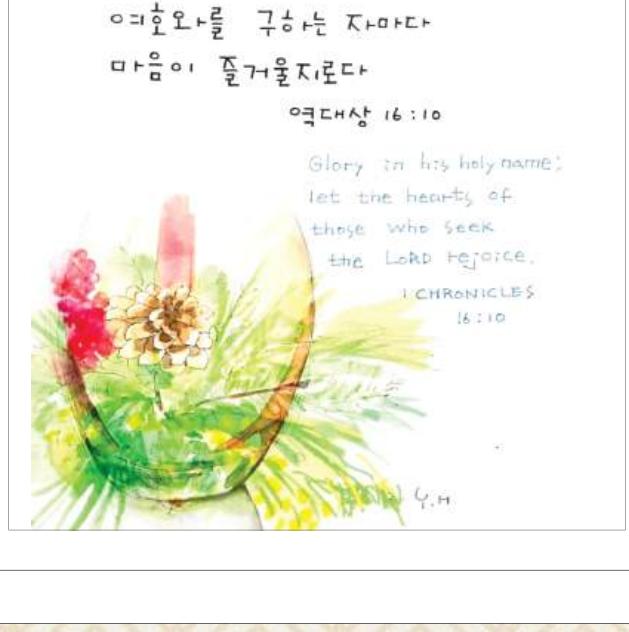
람에게 여러 모습이 돼,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십자가 앞에서의 변증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 그들에게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다가갈 것이 아니라, 각 민족과 나라, 문화와 배경, 나아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세계관에 맞춰 다가가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가 해왔던 변증이고, <십자가 중심 변증학>은 그 오랜 역사와 전통, 성경적 특성을 갖춘 변증의 방식이 무엇인지 충분히 가르치고 훈련해 주는 훌륭한 입문서가 될 것이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모임은 “용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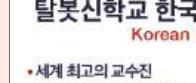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026 미주기독대학박람회



신입생 모집

탈보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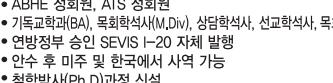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설립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보” 검색

유튜브: “탈보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대학(BC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712)621-227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 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기독교 신학대학원으로 운영되었으며, 2000년 미래지향적 교육을 목표로 대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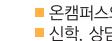
* 최첨단 학술적인 온 오프라인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o.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성경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경기사학, 비영리단체사업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8-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Azusa Pacific Universit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EL:(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시민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lis.org

학교주소 :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iaurahlio@gmail.com

전화 : 1508-826-5145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개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info@evangelia.edu

www.evangelia.edu

1204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info@evangelia.edu

www.evangelia.edu

[서성록, 한 점의 그림] 한스 홀바인의 바니타스 인물화

인생의 덧없음 극복할 유일한 길, '십자가의 그리스도'

왜곡된 형상 그려 죽음 암시해
총위 다른 삶과 죽음 대비시켜
모자·루트 등에서도 죽음 암시
덧없는 인생, '더큰세계' 보라

한스 홀바인(Hans Holbein Younger, 1497-1543)이 활동하던 시절 스위스 바젤에는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는 종교개혁 초기에 인쇄업자들과 협업하면서 많은 삽화와 조상화를 제작했다.

하지만 1520년대 중반부터 바젤은 종교개혁의 흐름에 휩싸여 예술가들에게는 불안정한 환경이었다. 자신의 기량을 펼 수 있는 활로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러던 중 홀바인의 후원자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는 영국의 토마스 모어(Thomas More)에게 홀바인을 추천했고, 그는 잉글랜드에 체류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런던은 홀바인에게 재정적 안정과 예술적 기회를 동시에 제공해주었다.

이 시절 제작된 작품이 〈대사들〉(1533)이다. 이 그림은 잉글랜드 역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당시 영국과 교황청은 헨리 8세의 재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헨리 8세는 이미 스페인의 공주 아라곤의 캐서린(Catherine of Aragon)과 결혼한 사이였는데, 그녀는 헨리의 형 아서가 사망하자 부왕인 헨리 7세의 강압으로 헨리 8세와 결

훈하게 된다.

그런데 정작 헨리 8세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여인은 캐서린의 시녀 앤 볼린(Anne Boleyn)이었다. 교황청에서 이혼승인을 거절당하자, 헨리 8세가 1533년 앤과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리는 바람에 교황청과의 갈등은 더 심화됐다.

당시 왕과 교황청의 대립은 국가 간 충돌이 발전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중재를 위해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가 외교사절을 영국과 로마에 각각 파견했다.

그때 영국 특사로 외교임무를 떠나온 인물이 바로 장 드 댈트빌(Jean de Dinteville)과 조르주 드 셀브 주교(Bishop De Selve)였다. 홀바인의 그림에서도 두 사람이 정면을 응시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그들은 매우 중요한 임무를 떠나 파견된 외교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홀바인의 관심은 영국과 교황청의 중재와 같은 정치적 현안에 있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도출하고 싶어했다. 오른쪽의 댈트빌은 화려하게 장식된 칼집을 손에 들고 있고, 프랑스의 가장 명예로운 기사훈장인 생 미셸 훈장(Saint-Michel)을 목에 걸고 있다. 그의 의상은 그가 막강한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해준다.

오른쪽 셀브 주교는 밀라노에서 소년기를 보냈으며 18세에 남프랑

스에서 주교가 된 성직자인데, 그림을 보면 오른팔이 옮겨진 책의 가장자리에 라틴어로 'AETATIS SVAE 24'라고 적혀 있어 셀브 주교가 젊은이였음을 알려준다.

한 사람은 정치가요 다른 한 사람은 성직자였지만, 두 사람은 아마 음악과 천체학에 조예가 깊었던 모양이다. 그들이 기대고 있는 선반 위에는 그들의 관심사를 염볼 수 있는 물건들이 놓여 있는데, 상부에 위치한 물건은 천구의와 휴대용 해시계, 사분의 등 천문학과 시간측정도구들이 놓여있다.

하단에는 지구의와 수학책, 삼각자와 캠파스, 한편에는 류트와 피리, 그리고 루터의 찬송가 책이 놓여 있다. 그림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유럽 일대를 휩쓴 종교개혁과 중세 말 크게 유행한 류트 등 시대의 증후를 짐작할 수 있는 기물을 들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시대 분위기를 짐작하게 만든다. 특히 상부의 천문학과 시간 측정 기구들은 그들이 이성과 과학을 존중하는 당대 지성인이었음을 암시한다.

홀바인은 두 외교사절이 소임을 잘 수행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도 제공해 주지 않는다. 홀바인이 이 그림에서 강조하려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인생의 덧없음'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이 그림을 뛰어난 걸작으로 만든 결정적 요인이 아닌가 싶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두 사람의 이름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혔지만, 지금까지도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인생의 덧없음'이란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그림을 푸는 열쇠는 화면 맨 밑바닥에 그려진 무언가에 맞아 찌그러져 있는, 기이한 '왜상(anamorphosis)'에서 찾을 수 있다. 홀바인은 바닥을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의 것과 일치하게 만들고 그 위에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대각선으로 공중에 떠있는 왜상을 그려넣는 특이한 수법을 선보였다.

그 '왜상'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려면 발걸음을 살짝 오른쪽으로 옮겨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두개골, 즉 홀바인이 왜상을 통해 전달하려 했던 것은 바로 '죽음'임을 알 수 있다. 대사들은 젊고 명망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홀바인은 파격적으로 두개골 이미지



▲한스 홀바인, 대사들, 1533.

를 배치함으로써, 총위가 서로 다른 삶과 죽음을 한 화면에서 대비시키고 있다.

그림 이곳저곳을 살펴보면 죽음의 암시가 '왜상'에만 있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도처에 죽음을 암시하는 이미지가 매설돼 있는데, 댈트빌의 모자에도 황금으로 된 두개골이 달려 있고, 선반 위에 끊어진 루트도 사실은 육망의 덧없음, 나아가 죽음의 불가피성을 암시한다.

인생의 덧없음과 죽음의 유한함은 당시 미술가들의 주제였다. 특히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메멘토 모리'가 플랑드르 화가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으므로, 홀바인도 그 련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영국에서 만난 폴란드 출신 상인 〈게오르그 기체의 초상〉(Portrait Georg Gisze, 1532)도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런던에서 무역에 종사하던 상인은 비단으로 된 고가의 의상을 입고 있으며, 화려한 테이블보는 터키산, 벽면 금저울이나 장부일지, 열쇠, 동전 등은 주인공이 부유한 상인임을 알려준다.

머리 뒤쪽 쪽지에는 라틴어로 "이 그림은 게오르그의 얼굴과 외양을 보여준다. 눈도, 얼굴도 얼마나 생생한가. 그의 나이 34세에"라고 돼 있다. 이것은 인물의 의상이나 표정, 그리고 주위 물품들이 일정한 의도성을 가지고 배열돼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 의도성을 유리병 속 카네이션과 시계, 그리고 동전 등에서 찾

아볼 수 있다. 그림에서 베네치아산 유리병은 '쉽게 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카네이션은 곧 '시들어 버릴 수 있음'을, 시계는 '인간의 유한성'을, 동전은 '물질의 허망함'을 각각 상징한다.

벽면에 고딕체로 써 있는 "Nulla Sine Merore Voluptas"란 라틴어는 '슬픔 없이는 기쁨도 없다'는 뜻을 지니는 말로, 이 청년의 좌우명을 알려준다. 정치인을 그리든 성직자를 그리든 상인을 그리든 그는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홀바인은 그림을 통해 인생은 덧없으니, 세상 것을 쫓기보다 '더 큰 세계'를 바라보라고 요청한다. '더 큰 세계'란 〈대사들〉의 커튼 뒤에 가려져 있는 무언가를 바라볼 때만 알 수 있다. 화면 왼편에 위치한 커튼 가장자리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상이 자리하고 있다. 비록 구석진 곳에 자리하나 그것이 지닌 의미는 심대하다.

만일 그의 작품에서 '바니타스'나 '메멘토 모리'만 바라볼 뿐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의 그림은 단순히 삶의 경종을 올리는 교훈적인 그림으로 머물 것이다. 그러나 홀바인은 인생의 덧없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있다.

인간이 쌓은 놀라운 업적과 부귀영화는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지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듯하다.

서성록 명예교수



▲한스 홀바인, 게오르그 기체의 초상, 1532.

송영 투크 설렁탕

48시간 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의 맛!

5주년 기념 스페셜 투고 ONLY - 10AM ~ 2PM

설렁탕 \$10.99 Tax 포함가

설렁탕, 백미, 김치, 깍두기

정기카 통이지 때까지!!

화요일 투고스페셜 Only

고배기설렁탕 \$18.50^{tax}

고배기해장국 \$18.50^{tax}

고배기도가니 \$26.50^{tax}

목요일 투고스페셜 Only(1+1)

갈비탕 or 도가니탕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해장국을 무료로 드립니다.

\$22.15^{tax} (갈비탕 or 도가니탕 & 표고우거지해장국)

신메뉴 우거지갈비탕 개시!

아침 스페셜 GOOD MORNING SPECIAL

매일 | 7:00AM ~ 10:00AM

표고우거지해장국 or 통큰설렁탕 or 북어국

\$10.96^{tax}

Uber Eats 합니다.

(213)277-1339 | (213)263-9446
2717 W. Olympic Blvd. #108, Los Angeles, CA 90006

단체주문 환영
주 7일 오픈 7AM ~ 10PM
(구)베버리순두부 자리

‘악뮤 아버지’ 이성근 선교사 다들 교육 비결 묻지만, ‘내 교육’은 실패했다”

**이랜드미션 연합예배 초청
강의서 ‘하나님 경외’ 강조**

이랜드 신우회에서 준비한 이랜드미션 연합예배가 1월 5일 오후 개최된 가운데, 초청강사인 이성근 선교사는 이 자리에서 이찬혁·이수현 남매의 ‘악뮤(악동뮤지션)’를 키워낸 자녀교육 비결에 대해 강의했다.

이성근 선교사는 “2008년 5월 몽골 선교사로 나갔다가 2012년 11월 18일 K팝스타 시즌2 첫 방송이 나왔고, 2013년 4월 14일 악동뮤지션이 우승했다. 그때 아이들이 각각 고1과 중1이었다”며 “금방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셔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성근 선교사는 “K팝스타 우승 후, 자녀들의 창의성과 재능은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몽골의 푸른 초원인지, 부모의 독특한 힙스쿨링 교육 때문인지 묻는 것이었다”며 “아이들이 유명해진 후 힙스쿨링협회에서 강의해 달라는 연락이 왔지만, 사실 힙스쿨링에 실패했기에 나눌 내용이 없었다. 자녀교육에 대한 책도 썼지만, 책에 쓰지 못한 진짜 신앙 이야기를 해드리려 한다”고 운을 뗐다.

이 선교사는 “처음엔 당연히 현지 MK스쿨로 아이들을 보냈지만, 1년도 안 돼 재정적 압박으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 없게 됐다. ‘1년만 집에서 공부하면 다시 학교로 보내 주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힙스쿨링을 시작한 것”이라며 “이후 학교를 보내지 못했다. 제게는 가장 힘든 시간들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힙스쿨링 첫날부터, 재정 어려움이 해결돼 다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가정예배를 시작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고, 3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쌓여갔다”며 “친척이 중2가 되면서 사춘기가 시작됐다. 저는 아



▲이성근 선교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들의 사춘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다그치고 훈내기만 했다. 가족간 불화와 긴장이 가득해 고통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성근 선교사는 “힙스쿨링 3년째, 아내가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고 했다. 여전히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지만, 1박 2일간 가족수련회를 다녀왔다”며 “새로운 곳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요한복음 2장 1-12절 말씀을 주셨다. 제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다고 생각했고, 이후 2-3개월간 깊은 묵상과 성찰을 통해 하나님의 훈계를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 선교사는 “매일 가정예배를 통해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기도했음에도, 힙스쿨링이 계속되면서 2년차에는 불안이, 3년차에는 분노와 원망이 찾아왔다”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기도했지만 온전히 맡기지 못한 불신앙과 불순종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다.

그는 “선교사였기에, 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의 편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나의 의의 편이더라. 원하

는 대로 되지 않자 제 방법과 열심으로 해결하려 했고, 불신앙과 불순종이 드러났다”며 “부모의 과도한 책임감은 이처럼 자신과 가족,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철저히 회개했고, 깨닫게 하신 교훈을 가족들에게 나누면서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때문에 찬혁이의 사춘기 때문에 아닌 전적으로 제 문제였다고 고백했더니, 가족들은 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시 사랑해 주더라”며 “그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이전까지는 마음이 지옥 같았기 때문이다. 신앙으로서 가장 친밀해야 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고, 인간으로서 가장 친밀해야 할 가족과 갈등 관계였으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 같았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지금 이 순간이 천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회고했다.

이성근 선교사는 “그때부터 여전히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됐고, 가정예배는 축제로 바뀌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 다시 예배하고 기도하게 됐다”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아이들을 맡겨 드리겠다고 기도드렸다.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이들의 교사가 돼 달라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십니까?’라고 여쭤봤다. 이 질문에 알려주신 2가지 교훈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경외’이다. 그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삶에서 시작된다고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모든 교육의 기초가 돼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라며 “아이들에게 어떻게 경외를 설명해 줘야 할까 고민했다. 떠오른 기억은 처음 찬혁이가 태어났을 때 느꼈던 두려움이 경외와 깊았음을 깨닫게 하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세계”라고 설명했다.

이 선교사는 “두 번째 기억은 어느 시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떠올리면서 찾아왔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하셨던 하나님하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과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이 더 괴로우셨을 것”이라며 “이것이 성자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을 향한 경외였다. 이를 통해 저희 가정은 모두 경외를 배우는 학생들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후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와 말씀 묵상을 했다.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했다. 죽지 않으려 예배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운 훈련의 장이 됐다”며 “자녀들이 연예인이 되면서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기는 어려워졌지만, 지금도 매달 한 번씩 모여 드리는

가정예배를 최우선하고 있다. 그날은 일찌감치 모여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도 2시간 넘게 예배드린다”고 소개했다.

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성경묵상과 나눔이다. 이미 성인이 되고 머리가 굽어진 아이들을 제 말과 힘으로는 설득할 수 없지만, 성경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씩 변화되고 있다”며 “매달 가정예배는 하나님의 문화로 자리잡았고, 가족들은 말씀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교육의 기초와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는 구체적인 교육의 커리큘럼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구하지도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선물이 있다”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고, 이를 기뻐하시는 참 좋은 아버지”라고 전제했다.

이성근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태생적으로 허락하신 ‘지혜와 재능과 은사’가 발견되고 계발되며 사용되도록 돋는 과정이 바로 ‘교육의 내용’”이라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재능과 은사로 나눠주셨다. 우리 자녀들은 물론이고 부모인 저희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 바가 있다면,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선교사는 “이 2가지 교훈을 통해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됐다. 첫 번째 교훈을 적용한다면, 3년 동안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가 된 것”이라며 “두 번째 교훈을 통해 힙스쿨링에 진짜 관심을 갖고 조언을 구하고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다. 힙스쿨링 3년의 좌절 후 1년 동안 제가 다시 공부하면서, 아이들에게는 마음껏 놀라고 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기대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1년 공부 후 자신감이 생겨, 다시 힙스쿨링을 시작하려 했다. 그런데 2011년 몽골 한인교회에 갔다가 고3 친구가 ‘아이팟’이라는 노래를 지었다.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다음호에 계속]

CUCKOO www.Cuckoorental.com
213-663-9899

▪믿을 수 있는 품질, 확실한 서비스!
▪당신의 생활을 더 건강하게 쿠쿠와 함께하는 스마트 라이프!

쿠쿠밥솥, 정수기, 공기청정기렌탈, 구매, AVS상담, 환영

750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시온마켓 1층)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집에 있는 캐쉬는 이렇게 불려 보세요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 선생님, 저는 62세입니다. 남편과 스와みて 신발가게를 오랫동안 하고 드디어 두 달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남편은 저랑 나의 차이가 많이 나서 거의 70세인데 고생 많이 했죠. 아들이 둘인데 둘 다 잘 살고 있고 특별히 걱정은 안합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보니까 큰 재산은 없는데 저희가 집에 캐쉬로 한 30만불이 있더라구요. 우리 아저씨는 저에게 그냥 그 돈 집에 놔뒀다가 우리가 조금씩 쓰고 나중에 애들에게 물려 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이고 우리가 언제 30만불이나 모았을까, 왜 은행에 조금씩 넣지 않았을까 이게 돈이 있어도 후회가 됩니다. 저희는 뭐 남들처럼 생명보험이나 은퇴 플랜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은행에 돈이 좀 있고요, 매달 남편 소셜도 나오지만 작은 집에서 월세로 \$2500씩이 또 나와서 남편과 제가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페이먼트가 없고 차 값도 다 페이하고 들어가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이 그냥 이 30만불이 이자도 못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깝고 그리고 도둑이라도 들면 어떻게 하나 이제서야 걱정이 됩니다. 문선영 선생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돋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재정플랜을 돋고 있

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런 30만불이 캐쉬,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가지 않은 이 종이 돈으로 30만불이 집에 있다는 거죠. 흠… 이 돈이 아쉬운 이유는 이를

받지 못해서 정말 화폐 가치를 생각하면 30만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드니까 아쉽기도 하고요. 우리가 죽으면 아들들이 이 돈을 찾겠다 하지만 많은 경우 집안에 있는 캐쉬는 우리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처음 발견한 청소부나 매니저들이 먼저 발견하고 그들이 돈을 찾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요. 또 언제 도둑이 들까, 집안에 불이라도 나지 않을까 이 캐쉬로 있는 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걱정이시고요. 자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생명보험이나 은퇴 플랜 같은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30만불을 은행에 가져가셔서 디파짓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30만불은 large amount라고 해서 만불이 넘기 때문에 은행은 FORM 8300 양식을 작성하도록 할 겁니다. 또 10만달러 이상이니까 Form 3520이라는 양식을 작성

해서 IRA에 보고, 내가 그동안 비즈니스 하면서 모은 돈이다라고 말씀 하시면 됩니다. 이런 IRA에 보고하는 것은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를 목적으로 하는데 혹시라도 거액의 돈 세탁이나 마약, 범죄, 테러에 쓰일 것 같은 돈을 추적하기 위한 방편이지 30만불 정도의 돈에 벌금을 물기 위해서나 세금 조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 30만불은 은행에 넣고 어뉴이티 플랜을 하게 된다 그러면 10년이 지나 선생님이 72세에 이 30만불은 거의 두배 60만불로 자라고, 다시 10년 82세가 되시면 120만불 가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 이렇게 돈을 넣지 않으실 겁니다. 조심스럽기 때문이죠. 그러면 두번째 방법, 재정플랜으로 생명보험이나 허리케인이나 블랙홀처럼 집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지요. 그것도 다른 페이 없이 그냥 천불로 말이지 또 20년 동안 유지하시다가 20년 지나서 82세가 되시면 총

Sunyoung Moon

Financial Professional | 재정전문가

626.827.9599

SYMOONMONEYTALK@GMAIL.COM

한달에 천불씩 은행에 돈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또한 천불 만 내더라도 당장에 사망하시면 50만불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죠. 게다가 내 세금 없이 30만불이고 여기에 사망하시면 50만불, 최소하더라도 이를 받아서 \$462,430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라면 30만불을

은행에 품 8300과 품 3520을

작성해서 넣고 어뉴이티를 셋업

하거나, 한달에 천불씩 넣어서

당장에 50만불의 생명보험으

로 이자도 받고 즉각적인 50만

불자녀에게 물려줄 플랜도 해

보겠습니다.

현금 캐쉬로 가지고 있는 돈 불

려 보고 늘려 보고, 혜택도 받아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합과 섬김, 위로로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갑니다

위브리지 컨퍼런스

“건강한 교회 세우기(연합, 섬김, 위로)”

2026년 1월 26일(월) - 27일(화)

플라워마운드교회(담임 최승민 목사)

(200 Flower Mound Rd, Flower Mound, TX 75028)

컨퍼런스 강사



김귀보 목사
큰나무교회 담임



김경도 목사
플라워마운드교회 사역목사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원로목사



손해도 목사
달лас 코너스톤 교회 담임



허양희 사모
어스틴주님의 교회



다니엘 박 선교사
순회 선교사



강태광 목사
World Share USA 대표



문선영 대표
WISE CALIFORNIA 대표

사모의 영성

목회자,
남편과 아버지로 다시 서다

복음주의 운동과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를 위한
재정의 지혜

개회예배



홍장표 목사
달拉斯 수정교회

폐회예배



이윤영 목사
샌안토니오 한인침례교회

특별집회 (저녁/야침)



이성철 목사
GMC 한미연회



최승민 목사
플라워마운드교회 담임목사

*누구나 참여 가능한 특별집회

We Bridge 달拉斯 컨퍼런스는
목회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회복과 동행의 길을 모색하는 목회자 컨퍼런스입니다.
달拉斯 지역의 목회자 · 사모 · 선교사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 가능



- ① 등록마감 2026년 1월 19일(월)까지
- ② 등록비 무료
- ③ 문의 기독일보 (213-434-1170)
- ④ 신청방법 QR코드 스캔 후 온라인 등록